

매체의 활용과 작문 교육*

나정순**

1. 매체의 활용에 관한 모색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국어 교육의 매체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과거의 교육이 단순히 활자 매체를 통한 일방적 교육이었다면 오늘날 국어 교육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식 교육으로, 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다매체 사회 속에서 매체를 배제한 교육의 기획이나 소통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국어 교육에서도 매체와 관련한 교육은 보편적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매체와 관련한 국어 교육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매체 언어를 텍스트로 보고 매체 언어에서 드러나는 국어 사용 기능과 국어 문화를 끌어오는 상호적 방법이다.¹⁾ 이는 매체를 하나의 담론으로 보고 학습자를 매체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2000)의 연구원 자격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임.

** 국어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1) 박인기 외,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2000.

하게 하여 매체 언어를 통해 비판적 사고의 촉발과 창의적 사고를 기대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관점이다.²⁾ 또 다른 하나는 국어 교육에서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여 국어 교육의 지평을 열게 하는가의 문제이다. 매체와 관련한 국어 교육적 접근은 대개 전자와 관련한 방면에서 그 비중이 있는 듯하다. 사실 국어 교육의 열린 지평을 위해서도 그러한 시각은 매우 긴요하다.

그러나 실제 교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후자의 문제 즉 매체를 도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언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방법적 전략의 도구로 사용하는 측면의 연구 또한 절실하다. 이는 교육 공학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국어 교육과 매체를 연계하여 교수하기 위해서는 국어 교육을 담당한 이들이 접근하여 제시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OHP나 파워 포인트를 가지고 국어 교육을 했을 때 이러한 매체의 활용은 후자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비디오라는 매체를 가지고 국어 교육을 할 때 후자의 경우처럼 단순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한편 비디오 영화의 언어 담론을 활용하여 창조적 언어 활동을 실현하는 장을 열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매체의 활용'과 국어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질 때 그 사용 범위는 지극히 도구적인 측면에서부터 다양한 언어 활동이라고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범주까지 매우 복잡적이다. 여기서는 주로 후자의 입장에서 매체와 관련한 국어 교육 특히 작문 교육에 대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국어 교육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 교육에서 다양한 매체가 적극적으로도 의미 있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형편

2) 김대행, 「매체언어 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97, 1998.

이다. 실제 대학의 작문 교재나 수업의 틀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영역이 일면 추상적³⁾이어서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에게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요즘의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영상세대이어서 그들은 다양한 매체에 익숙해 있다. 그들은 오히려 인쇄 매체를 제외한 여타 매체와 친숙한 편이어서 학습자의 입장에 서서 수업 현장에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수업 방법을 도입하고 모색하지 않는 한 그들을 의욕적으로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교수자가 열심히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 이는 분명 교육 현실에서 문제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면에 주목하여 매체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교육 공학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은 결국 국어 교육을 담당한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해결하고 개척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 교육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는 실상 일반화되고 추상적이어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한 이들의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⁴⁾

그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실제 작문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체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몇 가지 매체 활용에 관한 수업 모형과 그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일례로 구성주의 작문 교수 학습론의 이론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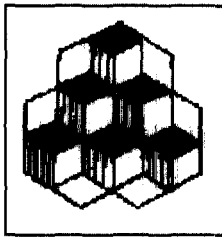
4) 그런 의미에서 김동환 외(『매체언어와 국어교육: 매체언어의 소통 원리와 교육적 대상화의 방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보고서, 2000.5)의 연구는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상화의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창조적 사고와 표현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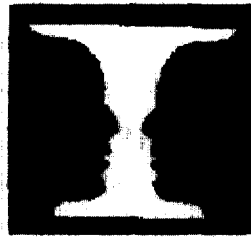
작문 교육에서 선행적으로 학습자에게 이해시키는 중요한 전제의 하나가 창조적 사고와 표현의 중요성이다. 대학의 수많은 교재 제목부터 교과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고와 표현'은 이제 작문과 관련하여 하나의 대명사 처럼 일반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창조적 사고와 표현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왕에 나온 교재들을 살펴보면 그것에 대해 활자를 매체로 한 설명의 방식으로, 즉 전통적 방식의 교과서를 고수하면서 내용을 전개시킨 경우도 있고, 혹은 그림이나 만화와 같은 시각적 매체를 동원하여 그 중요성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도해 보면 물론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다음 그림과 같은 경우⁵⁾를 예로 들어 보자.



<그림 1>



<그림 2>

먼저 <그림 1>이나 <그림 2>와 같은 예시를 주고 학생들을 조별로 나누어 토의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해 보도록 한다고 해 보자. 대개 <그

5) 강정희·김균태 외, 『작문의 이론과 실제』, 한남대출판부, 1995. 참조

림 1>과 같은 경우 학생들은 검은 면이 위로 올라오도록 하여 답을 유추한 경우와 그 반대로 검은 면을 바닥으로 생각하여 답을 유추한 경우, 상자가 눈에 보이는 경우와 보이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6, 7, 10, 11개 등의 다양한 답을 제시하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아주 기발한 답도 나오는데 '뒷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뒷면 어딘가에 무수히 끝없이 여러 개의 나무도막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독특한 관점의 답이 그것이다.

<그림 2>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들은 화분대 혹은 분수대, 마주 보는 두 얼굴 등의 해답을 제시한다. 그러나 간혹 아주 기발한 대답이 나오기도 한다. 어느 미대생은 이것을 '물감의 튜브에서 물감을 짤 때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 특유의 감성적 사고가 발현된 기발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답은 창조적 사고의 관점에서 표현한 경우로서 곧 다양한 관점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위의 예시는 결국 다음과 같은 설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한 수업 모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의 그림들이 보여주는 역설의 착시 현상은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사물의 다양성을 보지 못한 채 어느 한 면만을 보고서 그것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기 쉽다. 따라서 사고도 여러 관점에서 행해야 하고 내가 아닌 남의 관점에서도 귀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관념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만약 교수가 위와 같은 내용을 시각적 매체의 활용 없이 단순히 설명으로만 말한다면 학생들은 그에 대해 깊은 감응을 느끼지 못하며 또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제 수업에서 앞서 제시한 그림과 같은 다양한 매체의 수용과 활용은 수업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며 주의력을 집중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3. 표현의 기초와 이해

국어 교과 영역에서 이해의 과정은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해의 교육 과정은 여러 경로를 통해 그 장을 펼치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작문 교육과 관련한 매체의 활용 측면에서 구체적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나 대학의 교양과정 중 작문의 영역에서 '표현의 기초'가 되는 부분은 수업 현장에서 자칫하면 일방적 주입식 문제 풀이나 해설이 되기 십상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참사자들의 넋을 기리다/ 위로하다 (올바른 어휘 찾기)

결과적으로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중복 표현 찾기)

그 친구는 내일 미국으로 떠날 예정으로 있다. (외국어의 그릇된 번역 문제)

()은 할수록 줄고 말은 할수록 는다. (속담 어휘와 뜻 알기)

그러한 부정적 측면은 우리나라 교육의 본질적 개혁을 위해서는 값당해야 하며, 행정 과정에서 바로 잡힐 수 있다. (문장 성분이 올바른 호응으로 이어지도록 고쳐 보기)

철수는 작년에 헤어졌던 여자와 다시 만났다. (모호한 의미 부분 찾기)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직접 말로 써 시켜 답을 제시하여 맞추는 방식은 이제 진부하여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쉽게 귀기울이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를 활용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주변에서 매체 활용의 초보적인 단계로서 OHP의 활용을 심심치 않게 보아 왔다. 그러나 OHP의 활용은 대개 내용의 요약이

나 도표를 제시하는 제한적 사용에 머물러 있어 과거의 종이 패드처럼 더 이상 학생들이 활용하기에는 신선하지 못한 도구가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하는 파워 포인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이러한 체제는 실상 학생들에게는 과거의 종이 매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파워 포인트의 경우 소리나 영상을 좀더 자율적으로 조절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내용제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OHP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OHP의 경우도 우리에게 쌍방향 소통이라는 수업을 진행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⁶⁾

예를 들어 앞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놓고 한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들을 모두 수업에 참여시키는 동시에 국어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학생을 조별로 나누어 제시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체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문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5분이나 10분의 시간을 주어 제시한 문제를 조별로 해결하게 한 후 미리 마련한 TP에 각 조에서 풀이한 답을 써 놓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각자가 알고 있는 문제의 답을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토의를 거치게 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두어 조별로 해결한 답을 OHP로 맞추어 보도록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조가 작성한 결과와 다른 조의 해결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집중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OHP라는 매체를 단순히 벽걸이식 레도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벗어나 문

6) 조벽, 『새시대 교수법』, 한단북스, 1999, 33면.

여기서도 OHP는 강의 내용을 보완해야지 대처하거나 중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잘 사용된 OHP의 경우로서 말로 표현 안 되는 내용을 보이게 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제 해결의 장을 펼치기 위하여 비교와 소통이라는 상호적인 활동적 매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내용의 성격상 학습자의 주의를 끌어 전체 학습자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하게 여겨질 수 있는 OHP라는 매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신을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국어교육이 좀더 현장에서 학생들과 친숙해지기 위하여 교육공학적 측면과 접맥하여 연구되어야 할 점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표현의 기초와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각도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요즘의 학생들은 통신 언어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언어 사용에 자신 없어 하며 또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통신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인하여 맞춤법 사용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컴퓨터를 활용한 맞춤법 교육은 현재 수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교수자는 다양한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일례로 잡지를 활용한 번역을 통해서도 표현의 기초와 같은 부분의 교육 영역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 나오는 영자 신간 잡지에서 일정 부분 발췌하여 번역을 해오도록 한 후 그것을 토대로 번역을 거친 문장이나 어휘, 접속 호응의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고쳐 볼 수도 있다. 특히 학생들이 과제로 제출한 번역문을 TP에 올려 OHP로 전체 학생들이 보면서 문장의 기초나 표현의 기초를 설명하는 방법은 학생들에게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멀티미디어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이라면 컴퓨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번역문을 커다란 화면에 띄워 놓고 고쳐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즉시성, 현장성, 쌍방향 소통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 교육의 효과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4. 새롭게 보기와 주제 정하기

글짜기의 체계에서 주제를 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흔히 글을 쓸 때 창조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결국 진부하지 않은 주제를 택하여 생각을 펼치는 것에 그 주안점이 있다. 최근 들어 새로 쓰거나 새롭게 보기의 문화가 다양한 장르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작문의 영역과 관련하여 볼 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새로 쓰기의 한 예를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형제의 백설공주 이야기는 이렇 폐쳐에 의해 새로 씌어지거나 바바라 워커에 의해 <흑설공주>라는 이름으로 다시 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새로 쓰기의 의미는 과거의 진부한 주제나 이야기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 속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재생산하고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관념적 허구를 부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새로 쓰기의 양태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광고나 대중문화 현상의 몇 가지 예를 OHP로 보여 준 후 패러디나 표절의 경계를 통해 문화 창조에서 필요한 창조적 양심과 도덕적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주제 정하기의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소리나 영상 전달의 매체를 통해 대중음악을 예로 들려주면서 표절과 샘플링의 경계를 이야기해 보고 글쓰기 문화에서 요구되는 상상력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것도 요즘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배끼기가 만연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글쓰기 태도에 좋은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행했거나 유행하고 있는 패러디 영화나 음악을 비디오나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컴퓨터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여 주면서 글쓰기를 유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무서운 영화’나 ‘롱폴리 어큐즈드’와 같은 패러디 영화를 부분적으로 편집하여 보여 준 후, 주제 없이 상업성에 기반하여 재미만을 추구할 경우 그것이 문화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를 토의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그와 관련하여 안 코빅의 노래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패러디 노래 등을 매체로 활용하여 그것이 가지는 의미의 무게를 토의해 보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흥미로운 제재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 문화 전반에 걸쳐 패러디라는 것이 성행하고는 있지만 가치 있는 패러디 문화는 정착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쓰기를 위한 동기 유발을 시킴으로써 작문의 영역과 관련지어 보는 것도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전을 가지고 새로 쓰기를 해 본 작품의 예로, ‘아기장수 설화를 새로 쓴 최인훈의 <옛날 옛적 휘어이 휘어>와 같은 작품이나 주기도문을 패러디한 박남철의 작품 혹은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작품들은 문학 속에서 새로 쓰기의 주제가 관념적 허구의 틀이나 왜곡을 어떻게 부수고 새롭게 탄생했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지금 하늘에 계시지 않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의 말씀이 아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나
땅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이다.(중략)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말해지고
있사옵니다.

언제나 출타 중이신 아버지시여

-박남철, <주기도문> 중

지금 하늘에 계신다해도
도와주시지 않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 선불리 믿을 수 없사오며(중략)
제발 이 모든 우리의 얼어죽을 사랑을 평론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를 언제까지고 그냥 내버려 뒀 두시겠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제 아버지의 것이 아니옵니다(를 일흔 번
쯤 반복해서 읊어 보시오)
밤낮 없이 주무시고만 계시는
아버지시여

-박남철, <주기도문, 빌어먹을> 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오규원, <꽃>의 패러디 중

내가 꽃에게 다가가 '꽃'이라고 불러도 꽃이 되지 않았다. 플라스틱 조화
였다.

-황지우, <다음 진술들 가운데 버틀란트 러셀경의
확정적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중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장정일,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중

이와 같은 예시를 OHP를 통해 제시하면서 교수자는 주제 설정과 관련

하여 쓰기 교육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고, 혹은 문화에서 차지하는 문학의 비중과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문학 작품에서 드러나는 주제의 의미를 일깨우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주제 정하기의 영역은 작문 교육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작문 교육에서 행해졌던 표현의 기초와 같은 영역보다는 오히려 이와 관련한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창의적으로 고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진술방식

1) 묘사와 서사

묘사와 서사의 진술 방식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 글쓰기를 시도해 보지 않은 교수자는 없을 것이다. 대개 대학의 교재에서 '묘사하기'의 대상은 '우리 학교의 풍경'이나 혹은 '친구의 얼굴'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예들은 현실적 대상의 생생한 속성을 묘사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활자화된 것이라는 점 때문에 학생들의 쓰기 욕구를 자극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수업 시간에 현장에서 비디오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영화의 한 장면을 제시해 주고 묘사해 보기를 시도하는 것도 학생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혹은 동일한 내용을 토대로 한 소설과 영화에서 어느 한 장면이 글로 써 묘사된 경우와 영화 속에서 묘사되어 나타난 경우를 비교해 보고 객관적 묘사나 암시적 묘사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보이는 것도 묘사적 진술 방식을 친숙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에서 과거에 서사문 쓰기를 시도했던 한 방법을 보자.

1) 유명한 골동품 수집가인 김구식씨가 볼품없게 생긴 개 한 마리가 밥을 먹고 있는 그릇을 무심코 보았다. 그 밥그릇은 덕지덕지 개밥이 붙어 있지만 분명 이조 백자였다. 분명 개 주인은 이조백자를 개 밥그릇으로밖에 취급하지 못하는 무식한 촌놈이겠지? 저 개만 사고 나면……

2) 김구식씨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동네를 빠져 나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그런 그를 조롱이라도 하듯 불상 사나운 개가 꼬리까지 흔들며 졸레 졸레 따라오고 있었다.

위의 예시와 같은 내용은 대학의 작문 교재에서 흔히 보이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빈칸에 빠진 내용을 첨가하는 서사적 진술을 써 보자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재미있는 구성을 통해 곧잘 그 내용을 전개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글 쓰기에서 서사적 진술 방식을 이해하게 되는 한가지 내용만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서정인의 ‘강’이라는 작품을 영화화한 장면을 보여주고 서사문 쓰기를 시도해 본 연후에 학생들이 쓴 글의 일부분과 소설에서 제시된 부분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나서 서사적 진술 방식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집중도와 호응도도 훨씬 높아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서사문 쓰기를 해볼 때 서사적 방식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글 쓰기의 문법 외에도 영화의 서사적 문법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은 매체와 매체언어를 통해 국어 교과와 방향이 나아가야 할 지표를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2) 논증과 설명

작문 교육에서 쓰기와 말하기는 가장 기본이 된다. 이제 말하기를 통해

쓰기를 유도하는 방법은 일반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를 가지고 말하기를 해 본 연후에 쓰기를 시도하는 방식과 같은 것이 그것인데 여기에는 매체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대두된다.

가령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가지고 논증이나 설명을 해보자는 방식은 지극히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어서 학생들의 참여와 주목을 끌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럴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비디오를 활용한 영화 제시 방식이 될 것이다. 일정 부분 여성 문제를 담고 있는 영화를 보여 주고 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유도한 후 토의나 토론을 통해 설명과 논증을 가르치는 방식은 비교적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간혹 한시간 전부를 영화 보기에 할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시간 분배와 수업의 능률적 측면에서 볼 때 수업 시간 전체에 걸쳐 영화를 보여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부분을 뽑아서 약 20여분 정도 보여 준 후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토의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한 연후 그것을 토대로 글쓰기를 해 보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글을 쓸 경우에는 그것이 활자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교정을 통하여 첨삭이 가능하지만 말하기를 할 경우에는 조금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논증을 통한 설득에서 혹은 설명의 방식에서, 학생들이 말하기를 하는 동안 교수는 그것을 녹음해 두었다가 구체적 내용을 가르칠 때 다시 재생하여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방식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이란 즉시 사라지는 속성 때문에 금방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녹음한 것을 재생하여 다시 들려주며 설명을 할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말하기 방식에서 자신이 주로 하고 있는 설명의 방식은 무엇인지 혹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어떠한 논거를 들어 논점 명제를 제시하는지 꼼꼼히 짚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자재가 마련되어 있는 방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OHP나 비디오, 컴퓨터 등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즉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의 상황에서 유용하게 계발할 수 있는 방법적 장치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6. 창작과 감상을 위한 작문 교육

국어 교육의 영역에서 이해와 감상과 창작은 특히 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⁷⁾ 따라서 작문 교육에서도 글쓰기의 방식은 단순히 표현의 기초를 토대로 한 기술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창작과 감상이라는 영역으로 방법의 확대와 전환이 요구된다.

대학의 작문 교육은 대부분 교양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체제적 성격상 매체의 활용을 통해 창작과 감상이라는 영역으로 그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작문 수업에서 감상의 영역에 할당된 교과 과정을 보면 독후감 쓰기나 문화비평문 쓰기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진부한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창작의 영역 역시 제한되어 있어 진취적으로 강행한다고 해도 간단한 시 쓰기를 해보는 것이 고작이다. 이러한 틀과 방법은 학생들에게 작문 수업을 친숙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김대행, 『문학교육 뜯짜기』, 도서출판 역락, 2000.

예를 들어 한동안 유행했던 3행시 열풍을 보자. 학생이면 누구나 한번 짚은 3행시를 지어 보았을 터이나 대개 그 내용이나 형식이 조잡하고 장난기 어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올린 3행시 중에서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작품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행시를 지을 때 순간적 말하기라는 일회성 때문에 자칫 조야한 입담으로 치달을 수도 있으나 인터넷 상에서는 올려진 작품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다는 책임감도 주어지므로 상황에 따라서 자기 확대의 발전적 글쓰기로 갈 수도 있다.

안 안 오시면 어이할세라
진 짓무른 뒤 오시려거든
서 서러워할 가슴이결랑 울어 묻으리⁸⁾

이름을 운으로 한 이 작품은 일반적 3행시에 비해 비교적 언어의 조락이 세련되고 무엇보다도 언어 유희를 하지 않는 진지한 태도가 주목을 끈다. 학생들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3행시에서 발전하여 현대시조와 같은 작품 세계에 몰입하여 창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행시 짓기를 한갓 현대판 언어 유희의 하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을 통해 시조 작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교수자의 아이디어와 능력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이끌기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산출할 수도 있다는 창작의 가능성과 여지를 보여 준다.

다시 말해 교수가 학생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장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한 후 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길잡이와 평가를 해준다면 학생들을 창작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8) <http://sijo.co.kr>. 네티즌시조 감상 6.

것이다.

이것은 짝막한 시나 시조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긴 소설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학생들이 조별로 나누어 집단 창작이나 이어 쓰기를 해 본 후 서로 돌려보면서 작품에 대해 평가해 보고 감상해 보기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전문 작가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문학과 학생들의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고 문학 작품 혹은 창작에 대한 내용을 익힐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상의 영역도 인터넷 상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학생들이 변하면 교수의 학습의 틀도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교수자가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영역을 모두 바꾸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작문의 영역에서 볼 때 학습자가 더욱 많은 책 혹은 작품을 접하게 하여 그들의 진솔한 사고나 정서를 표출하는데 적극적 기회를 부여하자는 말이다.

가령 감상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려면 교수자는 지금까지 답습되어 온 것처럼 학생들에게 제한된 작품을 지정해 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능동적으로 작품을 찾아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찾아 인터넷 상에 올리게 하고 그 작품이 왜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나 느낌을 주었는지 글을 올리게 한 후 그에 대해 토의와 토론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이 좋아하는 작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작문 수업이 제한된 시간과 틀 속에서 교수자가 몇몇 학생의 우수 작품을 단편적으로 들려주던 방식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특히 웹 상의 자료들은 관련된 다른 자료들로 연결해 나갈 수 있어서 종래의 직선형의 학습을 탈피하여 분지형의 학습이 가능해지고 학습자

사이의 다양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상호 작용성⁹⁾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을 찾을 수 있다.

학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테크놀로지 교육이 이미 활용되고 있고 작문 교육에서도 웹을 기반으로 한 모형이 연구되어 제시되고 있는 시점¹⁰⁾에서 작문 교육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교육의 지속적인 개발과 모색은 매우 필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7. 매체를 넘어선 작문 교육

지금까지 작문 교육과 관련하여 매체의 다양한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다변화하고 정보 통신이 발달하고 있다고 해서 빈번히 거론되고 있는 테크놀로지 교육이 국어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수록 작문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그들의 인문적 감성과 창의적 사고를 되살리게 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작문 교육은 매체나 매체언어를 지향하는 도구 중심의 기술적 전략을 통해서만 그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살아 있는 문화 속에서 그들이 체험하여 느끼고 본 것을 창의적으로 열어 주는 교육 또한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 글쓰기나 읽기 말하기의 문제 해결 전략은 부차적인 것일 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습자를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학습자는 진정한 쓰기 욕구나 말하기 욕구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

9) <http://mei.ewha.ac.kr>. 교육과 컴퓨터/웹의 교육적 활용.

10) 김민규, 「창의적 작문 교육을 위한 웹 기반 시뮬레이션 개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1.

여 잘 다듬어 낼 때 작문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 백일장 대회를 열고 사생 대회를 여는 것은 그저 단순한 요식적 행위가 아니다. 사실 그 바탕에는 교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새로운 것을 접하며 창조적 사고의 장을 펼치라는 의미가 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행위들조차 진부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지만 교수자가 장을 만들기에 따라서는 학습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의 이미지를 관찰하여 내면적 추동력을 만들어 내게 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실제 수업을 통해 관찰한 결과를 보면 박물관에 직접 가서 묘시문을 써 본다는가 다른 대학을 답사한 후 답사기를 써 볼 때 학생들의 작문은 훨씬 더 생기 있고 문제 의식 있는 창조적 표현들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현장의 문화야말로 작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도구며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매체를 활용한 교육 못지 않게 매체를 넘어서 교육 또한 국어 교육의 교육적 대상화 방법에서 중요하게 설정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 문헌

- 강정희·김군태 외, 『작문의 이론과 실제』, 한남대출판부, 1995.
 김대행, 「매체언어 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97, 1998.
 김대행, 『문학교육 틀짜기』, 도서출판 역락, 2000.
 김민규, 「창의적 작문 교육을 위한 웹 기반 시뮬레이션 개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1.
 박인기 외,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2000.
 박태호, 『장르 중심 작문 교수 학습론』, 박이정, 2000.

- 조벽, 『새시대 교수법』, 한단복스, 1999.
- 최현섭·박태호·이정숙 공저, 『구성주의 작문교수 학습론』, 박이정, 2000.
- 린다 플라워, 『글쓰기의 문제 해결 전략』, 원진숙·황정현 역, 동문선, 1998.
- <http://mei.ewha.ac.kr>. 교육과 컴퓨터/웹의 교육적 활용.

■ Abstract

Practical use of media and composition education

Na, Jung-soon

As everything is changing in this modern society, Korean educational media are obviously enhanced its properties, education of the past times, teachers enforced students to study using only a printing type material. However Korean education is changed to communicating education system using various materials nowadays.

Otherwise, we are wondered about using these various media actively and practically in real case. I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present some models and possibilities of using various media which were achieved through experiences in writing class.

Knowledge of creation, importance of expression, basic composition and understanding, new discernment and taking a main topic, statement, original and impression, taking part in large portion in composition education, are considered to be studied more using various media. With this view, OHP, Video and Computer Internet are tools that should be practiced diversely in Korean education.

In these days, students are more familiar with these technological media than other obsolete materials. So composition education is to be changed for them.

Although our society is changing rapidly and telecommunication system developed, technology education discussed frequently cannot be everything in Korean education. As these situations go on, students are required to obtain their cultural sentiment and knowledge of creation relating to composition education.

According to these, composition education is not broaden area only by practicing

media or technical tactics of tools which are intended to media-word. On the contrary, in the living culture education that opens creatively one's experienced feelings and sightings seems to be very important.

Therefore, composition education beyond media is no less important than education using media in Korean education.